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 준공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만전

규모 대폭 확대... 지역 낙농업 육성·유제품 유통·치즈 기반 관광 활성화 기대

임실군 임실을 갈마리에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임실을 봉황로 326)이 새롭게 조성됐다.

군에 따르면, 임실치즈농협이 심 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즈판매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은 치즈농협 본건물 한켠에 43㎡(13평) 남짓 작은 규모로 운영되어 오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신규 조성된 치즈판매장은 1층 320㎡(96평), 2층 324㎡(98평), 외부 주차장 38면 등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층은 판매장, 사무실, 저온저장고 등이 있으며, 치즈농협과 목장형유가공업체의 유제품, 자매결연 지역인 영동군의 와인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2층은 홍보 및 전시관으로 숙성치즈 홍보 공간, 랩터 및 휴식 공간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규 치즈판매장 조성을 위해 군은 전북특자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



임실치즈농협이 심 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즈판매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을 통해 임실치즈농협에 5억원을 지원했으며, 농협은 부지매입 등 자부담 27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에도 동부권식품 클러스터사업으로 임실치즈농협에 무가당 요구르트 생산 설비를 위해 3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 6월부터는 관내 34개교 학교급식에 무가당 요구르트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나서고 있다.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 준공은 지역 낙농업 육성과 유제품 유통, 치즈 기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담은 치즈판매장이 임실 치즈 산업의 저변 확대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저지 중 젖소 육성, 숙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홍보 판매 등 임실치즈 백년대계를 이룰 핵심 사업에도 임실치즈농협이 철혈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종합대책회의 갖고 대응방안 종합 점검

순창군이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대책 회의에는 13개 협업부서장이 참석해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부서별 대응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최 군수는 "올여름은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여름철 재난 대비 추진상황과 대책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24시간 재난 상황관리 체계 구축 △수돗물위험 159개소 정비 △인명피해우려지역 46개소



집중 관리 △취약노인 맞춤형봉사서비스 강화 △저수지 172개소 사전 방류를 통한 적정 수위 관리 등이 보고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신속한 홍보와 언론 대응체계, 비상연락망 정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도로·저수지 안전관리, 산사태 예방대책 등 각 부서별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발표됐다.

최영일 군수는 "여름철 자연재난은 예측 가능한 재해인 만큼 철저한 사전 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취약계층과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군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현장 점검

남원시는 지난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장마가 평년보다 앞당겨지고 태풍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건설 현장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위한 것이다.

점검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관련 지휘부와 실무진이 현장을 찾았으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내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조했다.

특히 2020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었던 요천 일대를 중심으로 호안 설치사업의 진행 상황,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현장 안전관리 실태,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보완을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적인 재해가 늘고 있어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다계내성균 관리' 감염관리 교육·간담회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17일, 순창요양병원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계내성균 관리'를 주제로 한 감염관리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 감염병대응팀,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수병원 감염관리실, 순창군 보건의료원 감염병대응팀, 순창요양병원 등 유관 기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다.

남원의료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2025년 남원권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건설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최경식 시장, 간담회 열고 시정 방향·주요 현안 공유·의견 나뉨

남원시는 19일, 지역 건설업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건설업계 대표, 운영위원, 전문건설업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이 직접 참석해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건설업은 남원의 도시 인프라를 떠받치는 뿌리 산업이자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

이는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도시의 미래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집행 추진 방식의 개선 △토목공사 예산 확대 요청 △공사비 수기(1~2월) 간담회 개최 등 건설업계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남원시는 정부 지원과 재정 여건, 제도적 제약 등 현실적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 일정에 대한 건의에 따라 향후에는 공사 착수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간담회 시기를 조정하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협의와 조율의 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등 남원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촌 크리에이티브어 본격 운영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 크리에이티브어 사업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임실군 농촌관광 공동협업체 임실오실(任實五實)을 중심으로 임실만의 매력을 담은 5가지 체험형 여행상품을 개발해 지난 4월 캠퍼어를 통해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지난주 정식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첫 번째 운영 상품인 '치즈맛보살-임실치즈마을 가족소풍'은 가족 단위 참가자 14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임실치즈마을에서 마을 이야기기, 결들여진 경운기 투어와 1인1피자 만들기, 치즈요리 플래터 체험 등을 즐겼으며, 이후 성기리 벽화마을로 이동해 임실치즈의 역사를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 다른 상품인 '섬진강가살-F형 감성여행'은 이달 중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세 가지 추가 여행상품을 준비 중이며, 농촌여행포털 웹툰과 오픈마켓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구강보건 향상 유공 도시사기관표창 수상

순창군이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순창군은 지역 내 아동, 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군은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 운영,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지원 등 실질적인 건강개선 효과를 가져온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소방서, 장마 대비 대응체계 점검

순창소방서가 여름철 풍수해와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훈련과 장비 점검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첫날부터 호우경보 수준의 집중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으며, 순창소방서는 이에 따른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 중이다.

소방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인톱, 삽 등 수방 장비의 적재 상태와 작동 가능 여부를 재점검했으며, 배터리 장비의 완충 상태 유지 및 수난 구조장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화재진압 대원의 탈수 예방을 위한 생수 비치, 교대조 편성 등을 통해 인명 중심의 안전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임무기반 대응전술을 토대로 지휘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재난안 전통신망 점검, 문자 안내 발송 등을 통해 실시간 대응역량도 높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